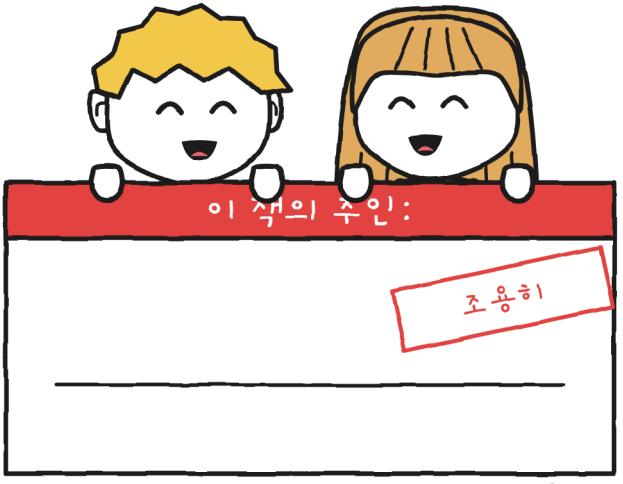


조용히. 열기 전까지는. —J.

이걸 주웠다면 돌려줘. 서프라이즈 없이, 주인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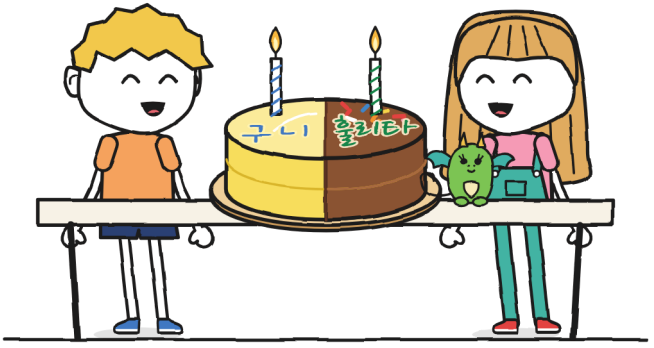
이야기 속에서만

이 도장은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표시해. 진짜 용은 없고, 택배는 날아서 돌아오지 않아. 진짜 파티는 마지막 쪽을 봐. —J.

불가능 배달 · 5

케이크 하나, 우리 둘

LinguAula



(구니의 공책)

사이즈 XL · 삽화 소설 · 13+

불가능 배달 · 5
케이크 하나, 우리 둘

시리즈 다섯 번째 책. 앞선 책: '이 택배는 문다',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반송해 주세요', '여기선 안 돼, 부스러기!'

글과 그림: LinguAula

한국어판: LinguAula

사이즈 XL · 삽화 소설 · 13+

초판: 2026

© 2026 LinguAula · info@linguau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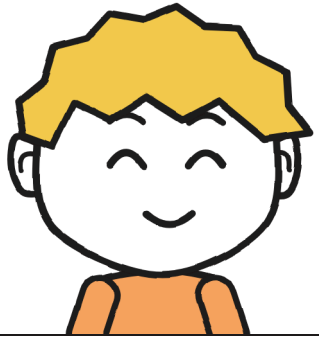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글꼴: Gowun Dodum, Gaegu, Nanum Pen Script, Nanum Gothic Coding, Andika, Patrick Hand, Caveat, Courier Prime (SIL OFL 라이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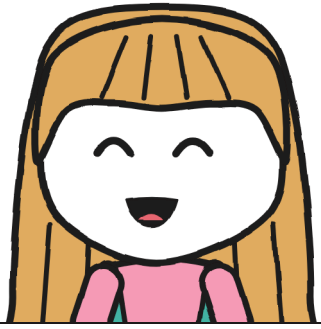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이 책을 쓰는 동안 다친 케이크는 없다. 반으로 잘리긴 했다.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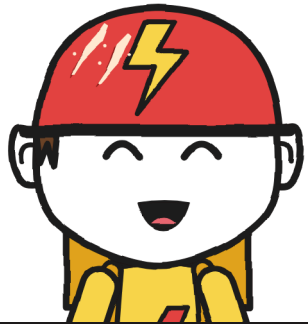
등장인물



구니. 토요일마다 배달하는 아이. 이 공책의 주인이다. 조용한 오후를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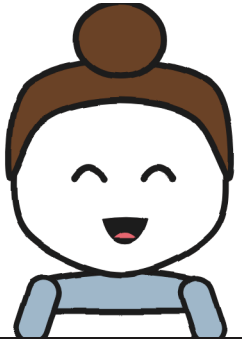
훌리타. 초록색으로 쓰고 J. 라고 서명한다. 음악이 있는 파티를 좋아한다. 그리고 서프라이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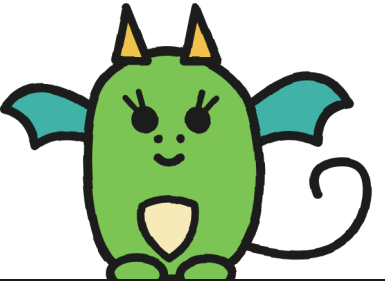
토요. 번개배송 배달원. 10분 안에 못 오면 공짜. 속임수는 배달하지 않는다.



마라. 불가능 배달의 주인. 마녀 모자를 쓴다.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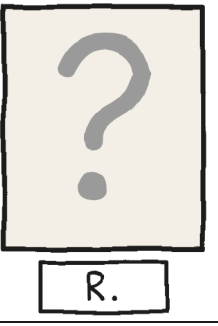
엘리아. 동네 빵집 주인. 오른 하나와 손 두 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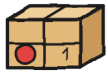
부스러기. 아기 용. 베라 아줌마와 산다. 초를 좋아한다. 너무너무.



5번 택배. 겉모습은 다른 택배와 똑같다. 라벨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들어가는 곳에 설치할 것.



R. 아무도 배달하지 못하는 택배를 보낸다. 아무도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제1장

초대장 두 장

4권은 잠든 운동화로 끝났다. 공책 하나의 끝으로 그보다 좋은 건 생각나지 않는다. 5권은 분홍색이다. 케이크 위 글레이즈 같은 딸기 분홍색이고, 한쪽 모서리에는 가게 도장이 찍혀 있다. 마라 아줌마는 토요일 아침에 아무 말 없이 계산대에 그걸 올려놓고는, 잉크병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열을 맞춰 세우기 시작했다. 그게 아줌마가 안 보는 방법이다.

첫 장에 쓸 말은 한 주 내내 이것저것 써 보고 있었다. 2권에는 공식, 3권에는 기밀, 4권에는 최종이라고 썼다. 나는 자물쇠 달린 말에 약한가 보다. 이번에는 찾을 필요가 없었다. 며칠 동안 바라면서도 몰랐던 것이 저절로 떠오르듯, 말이 그냥 나왔다.

맨 위에는 배달 공책 5 · 주인: 구니라고 적었다. 그렇게 쓰는 거니까. 그 밑에는 갓 깎은 연필로 천천히, 딱 한 단어를 썼다:

조용히.

느낌표는 없다. 조용한 느낌표는 모순이고, 나는 모순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편이다.

훌리타는 계산대 건너편에서 몸을 숙이고 있었다. 라디오를 듣는 앵무새처럼 고개를 갸웃한 채였다. 공책을 보여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훌리타는 거꾸로 읽는 것도 바로 읽는 것만큼 빠르고, 훨씬 뻔뻔하다.

"조용히." 훌리타가 말했다. 나한테가 아니라 그 단어한테.

훌리타는 벌써 힘이 빠진 초록색 매직펜을 꺼내 손가락 하나로 공책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더니, 그 밑에 이렇게 남겼다:

조용히라고 쓰는 사람은 앞날을 모르는 사람이야. —J.

틀린 데가 어딘지 찾으려고 세 번을 읽었다. 못 찾았고, 걱정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되지 않았다.

다른 공책을 못 본 사람을 위해 적어 둔다. 가게 이름은 불가능 배달이고 주인은 마라 아줌마다. 마녀이고, 보라색 모자를 쓰고, 도장을 찍으면 꺼진 양초 냄새가 나는 불꽃이 튀는 도장을 가지고 있다. 왼쪽 선반에는 돌아온 택배를 둔다. 아무도 배달하지 못한 택배이고, 전부 R.이 보냈다. 받는 사람이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라벨에 서명하지 않으면, 택배는 해 뜰 때 날아서 제 칸으로 돌아간다. 원래 스무 개였다. 훌리타와 나는 네 개를 배달했다. 용의 알, 다리 달린 씨앗, 작은 종, 도착 장비. 벽에는 초록색 글씨로 남은 택배 16이라고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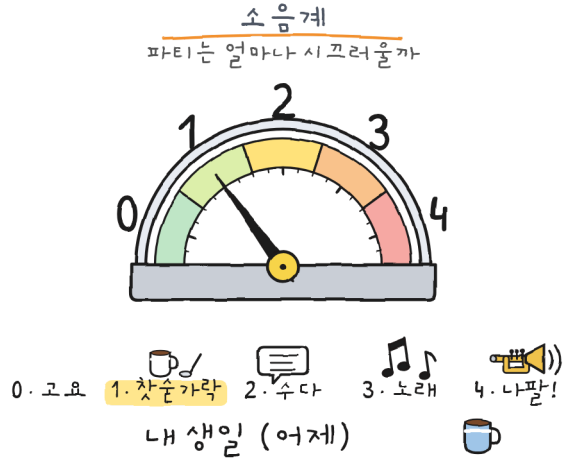
어제, 16일 금요일은 내 생일이었다. 집에서 엄마와 같이 보냈다. 레몬 케이크, 찻잔 둘, 노래는 아무도 안 불렀다. 완벽했다.

노래 이야기는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 집에서 그건 깜빡 잊은 게 아니라 약속이다. 엄마가 전날 빵 칼을 든 채로 물었다. "노래할까, 말까?" 나는 말자고 했다. 엄마는 서명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지켰다. 엄마는 케이크를

똑같이 네 조각으로 잘랐다. 두 조각은 그때 먹고, 두 조각은 나중에 먹을 것. 한참 동안 들린 소리라고는 찻잔에 닿는 찻숟가락 소리, 냉장고 소리, 그리고 아주 멀리서 지나가는 버스 소리뿐이었다. 그날 오후에서 제일 좋았던 건 버스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훌리타의 선물 이야기는 뒤에서 하겠다. 자기 자리가 있어야 하는 이야기라서.

생일을 제대로 기록하려고 그날 밤 기계를 하나 발명했다. 내 경력으로는 네 번째다. 떨림계, 빨강계, 여기계 다음이다. 시계처럼 바늘이 달린 눈금판에 눈금 다섯 개. 0은 고요. 1은 찻숟가락. 2는 수다. 3은 노래. 4는 나팔. 제목은 소음계, '파티는 얼마나 시끄러운가'라고 붙이고, 바늘을 1에 놓았다. 그 밑에는 작은 찻잔을 하나 그렸다. 내 잔이다.



훌리타는 허락도 없이 책장을 넘겨 눈금판을 보고, 찻잔을 보고, 힘 빠진 매직펜으로 썼다:

오늘 가짜 생일은 생일이 아니야. 간식이야. —J.



훌리타는 매직펜 뚜껑을 닫고 계산대에 팔꿈치를 괴더니, 안건을 읽는 사람처럼 말했다.

"수요일 21일이 내 생일이야. 그리고 우리, 같이 보내기로 했잖아."

"21일 다음에." 내가 말했다.

"토요일 24일. 다섯 시에."

"다섯 시에."

둘 다 적었다. 나는 분홍 공책에 연필로, 훌리타는 작은 수첩에 초록색으로. 훌리타는 시험지를 가리듯 팔 전체로 수첩을 가렸다. 나는 팔꿈치로 내 걸 가렸다. 저쪽 끝에서 마라 아줌마가 서류에 도장을 찍자 꺼진 양초 냄새가 나는 불꽃이 튀었는데, 우리 둘 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불꽃은 냄새가 나는데도. 우리는 계산대 양 끝에 각자 옆으로 서서 반쯤 등을 돌린 채, 같은 날짜를 저마다 자기가 주인인 듯 쓰고 있었다.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보면 방금 합의한 두 사람이 쓰는 걸 가린다는 게 이상하다. 그때는 팔꿈치를 제자리에 두어야 더 잘 써진다고 생각했다.

나는 파티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다. 훌리타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내가 알던 것이다.

훌리타에게는 조용한 오후가 필요하다. 늘 달리고, 시간을 재고, 질문하고, 마침내 가만히 있을 때는 발이 티가 난다. 발은 여전히 다른 데로

가고 있으니까. 운하 옆 널다리 벤치에서 소음 없이, 보온병 하나와 작은 케이크 하나로 보내는 간식이 훌리타에게 좋을 것이다. 나는 그 벤치를 안다. 널빤지 하나가 헐거워서 끝에 앉으면 흔들리고, 동네에서 가게가 하나도 안 보이는 유일한 벤치다.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때 거기에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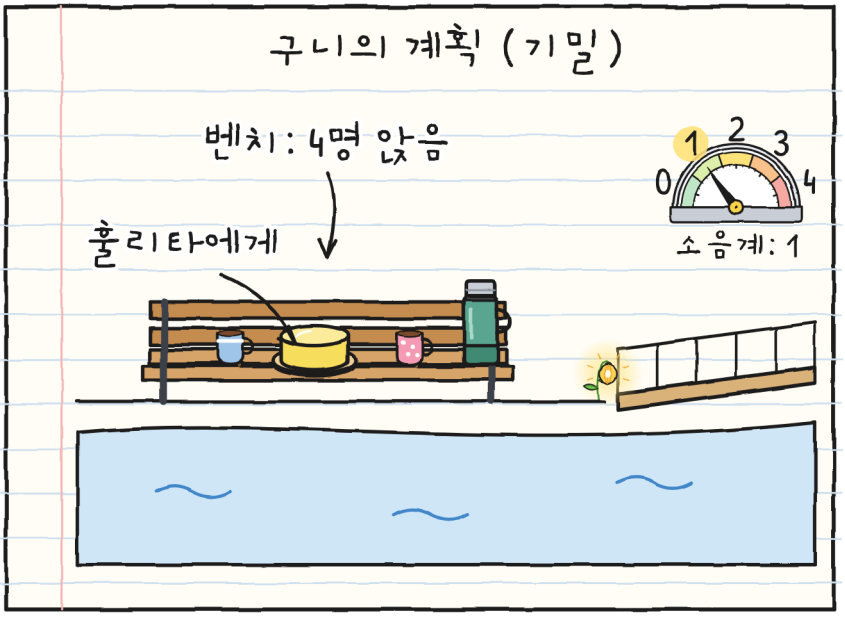
서프라이즈일 것이다. 훌리타는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오기만 하면 된다. 이보다 좋은 선물은 없다고 생각했다. 수고가 들지 않는 선물이니까.

물어볼 수도 있었다. 계산대 옆에 서서 연필을 허공에 든 채 생각했다. "훌리타, 서두르지 않는 오후는 어때?" 하지만 질문에는 대답이 있고, 대답은 싫다일 수 있다. 계획은 대답하지 않는다. 종이 위에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린다. 내가 그리는 것 대부분이 제일 잘하는 일이다.

그날 아침에 바로 다음 장에 그렸다. 벤치, 널다리 어귀의 작은 가로등, 케이크, 잔 둘, 보온병. 가게에 오는 길에 벤치를 재 봤다. 네 명이 앉는다. 맨 위에는 구니의 계획 (기밀)이라고 썼다. 누가 비밀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훌리타의 쪽은 다음 주 금요일에야 알았다. 그다음 장은 내가 쓴 게 아니다. 훌리타가 나중에 내 공책에 썼고, 훌리타가 둔 자리, 내 것 바로 옆에 그대로 두었다. 그게 있어야 할 자리다.

내가 알던 것: 구니에게는 진짜 파티가 필요해. 음악이 있는.
본인은 몰라도. 물어보면 싫다고 할 거야. 그래서 안 물어봐. —J.



훌리타는 깃발을 하나하나 그렸다. 내가 본 적 없는 인내심으로.



한낮에 토요가 배달에서 돌아왔다. 자전거를 문 앞에 세우고, 헬멧도 벗지 않고 들어와 '일단' 앉는 자기 상자에 앉았다. 나는 아침부터 파란 봉투 네

장을 들고 있었다. 가장 예쁜 글씨로 연필로 썼고, 번지지 않게 손을 가장자리에 대고 쓴 것이다. 훌리타는 안쪽에서 테이프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열 초쯤 남았다고 계산했다.

"받아." 네 장을 건넸다. "하나는 네 거야. 나머지는 마라 아줌마, 베라 아줌마, 플로라 아줌마 거고. 훌리타한테 서프라이즈야. 말하지 마."

"서프라이즈는 지킬게." 토뇨가 말했다.

'접수'라고 할 때 쓰는 목소리였다. 봉투를 보지도 않고 가방에 넣었다. 나는 생각했다. 운이 좋네, 배달하는 걸 읽지 않는 배달원이라니.

그다음에 일어난 일은 금요일에 토뇨가 시간까지 붙여서 이야기해 주었다. 번개배송에서는 시간이 이야기의 절반이니까. 나는 이미 점심을 먹으러 간 뒤였고, 훌리타가 고무줄로 묶은 초록 봉투 한 묶음을 들고 토뇨의 상자로 다가왔다. 아홉 장이었다. 토뇨는 두 번 세었다.

"하나는 네 거야. 나머지는 마라 아줌마, 베라 아줌마, 플로라 아줌마, 엘리아 아줌마, 안토니오 어르신, 소에, 브루노, 신발 가게 아줌마 거고. 구니한테 서프라이즈야. 말하지 마."

"서프라이즈는 지킬게."

같은 말, 같은 얼굴. 배달원과 거짓말쟁이를 가르는 건 아마 이것일 것이다. 배달원은 누가 묻느냐에 따라 메시지를 바꾸지 않는다. 이번에는 그래도 자기 몫 두 장, 파란 것과 초록 것을 차례로 열어 봤다. 납품서를 확인하듯. 같은 내용이었다. 토요일 24일, 다섯 시. 시간 다음에는 장소였는데, 거기서부터는 저마다 달랐다.

토뇨는 형용사 없이 이야기했다. 그게 토뇨가 친절한 방식이다.

오후에는 엘리아 아줌마의 빵집에 케이크를 주문하러 갔다. 따뜻한 빵 껍질 냄새와, 이름 붙이지 못한 달콤한 냄새가 났다. 들어서는데 문의 종이 아직 흔들리는 중에, 안쪽에서 부엌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엉덩이로 닫을 때 나는 둔탁한 소리였다. 초록색 멜빵바지 자락을 본 것 같았다.

다른 멜빵바지겠지 싶었다. 초록 멜빵바지는 흔하다. 실용적인 색이니까.

내 거였어. 엘리아 아줌마가 부엌으로 데려 줬어. —J.

"레몬 케이크로 작은 걸로 주세요." 내가 엘리아 아줌마에게 말했다. "위에는 아무것도 얹지 말고요. 토요일 24일 다섯 시, 널다리 벤치에서 먹을 거예요. 훌리타한테 서프라이즈예요."

하루에 두 번째로 한 말이라 벌써 구호처럼 들렸다.

엘리아 아줌마는 둥근 글씨로 그걸 종이에 적어 주문판 코르크에 압정으로 꽂았다. 거기에는 이미 다른 종이가 뒤집혀 있었다.

"토요일 24일 다섯 시? 그 시간에는 벌써 다른 케이크가 있단다. 다른 곳으로 가는."

"누구 건데요?"

"비밀이야. 네 것처럼."

볼 자격 없는 걸 보려고 까치발을 섰다. 그래 봐야 도움이 된 적은 없다. 다른 사람 거겠지 싶었다. 10월에는 생일인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 보려고 작게 생각해 봤는데, 괜찮게 들렸다. 한 달은 서른하루이고, 동네는 크다.

“네 비밀은 지켜 줄게.” 엘리아 아줌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것도. 하지만 난 오븐 하나, 손 두 개야. 토요일 다섯 시에 두 손은 한 군데로만 간단다.”

“그럼 다른 케이크는요?”

“그건 주문한 너희끼리 정해야지. 난 케이크를 만들어. 파티는 안 만들고.”

“엘리아: 오븐 하나, 손 둘, 장소 하나”라고 적었다. 숫자는 완벽하게 이해했다. ‘너희’는 그냥 보냈다. 우리 동네로 안 가는 버스를 보내듯이.

나한테는 다음 날 말해 줬어. 나도 너희는 이해 못 했어. —J.



가게로 돌아오니 토뇨가 가방을 계산대 위에 쏟아 놓고 봉투를 색깔별로 나누고 있었다. 초록은 한쪽, 파랑은 다른 쪽. 배달할 걸 정리하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다 하고 나서 다시 셌다. 그러고는 또 한 번.

“구니, 훌리타하고 파티 얘기했어?”

“아니. 서프라이즈잖아.”

“그렇구나.” 토뇨가 말했다. “번개배송에서는 주소가 두 개인 택배는 가게 밖으로 못 나가.”

“무슨 주소 두 개?”

“그건 말 못 해. 부탁받았거든.”

번개배송에는 모든 것에 규칙이 있고, 토뇨가 하나를 말할 때마다 나는 처음 듣는 것이라도 그러려니 한다. 이번 것도 처음이었다. 이해하지 못한 채 계획서 모서리에 적어 두었다. 어디에도 안 맞는 것들이 들어가는 자리다.

토뇨는 두 색 봉투를 하나씩 가방 주머니에 넣었다.

"이 두 장은 내 거야. 나머지는 월요일에."

그때 마라 아줌마가, 호령만으로 모든 선반에 손이 닿는 사람이 이번에는 파란 의자에 올라서서, 맨 위 선반에서 5번 택배 상자를 두 손으로 내렸다. 선반에 있는 다른 상자들과 똑같이,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안에서 나무가 뚝 하는 소리가 났다. 선반에는 늘 같은 크기의 깨끗한 직사각형이 남았고, 그게 네 개의 빈자리에 더해졌다. 벽의 글씨는 여전히 남은 택배 16이었다.

"엘리아는 다섯 시에 온다."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드디어."

한 주머니에 봉투 두 장. 서로를 전혀 몰랐어. 봉투 말이야. —J.

한 이야기, 여섯 가지 사이즈

이 책에는 여섯 가지 사이즈가 있다. 3세부터 16세까지, 언어는 20개가 넘는다. XXS, XS, S, M, L은 같은 그림으로 이야기를 쪽마다 들려주는데, 갈수록 이야기가 더 섬세해진다. XL은 소설이다. 같은 이야기에, 구니가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담을 자리가 있다.

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XXS, pre-A1 · XS, A1 · S, A2 · M, B1 · L, B2 · XL, B2–C1.

각자 자기 사이즈로. 케이크는 같아. —J.

가족과 교사를 위한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L 사이즈의 활동 포함)